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한 통계학' 학술회의

● 일시 : 1998년 9월1일~4일 ● 장소 : 멕시코 아과스칼리엔테스

지난 9월1일부터 4일간 멕시코에서 열린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한 통계학」 국제학술회의는 70여개국서

3백50여명의 통계학자와 관련 연구원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한국 대표로 참석한 서울시립대 전산통계학과 김규성교수는 이번 학술회의에서

‘통계조사결과에 대한 평가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에 관한

논문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지난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멕시코의 중소도시 아과스칼리엔테스(Aguascalientes)에서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한 통계학’(Statistics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이란 주제로 국제학술회의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 회의는 국제조사통계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urvey Statisticians, IASS)와 국제공식통계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Official Statistics, IAOS)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멕시코의 국립통계·지리·정보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Geography and Informatics, INEGI)가 후원하였으며 5개 대륙, 70여 나라에서 약 3백50명 이상의 통계학자와 통계관련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나흘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金奎聖

(서울시립대 문리과대 전산통계학과 조교수)

70여개국서 3백50여명 참석

회의 주제에서 나타나듯이 이번 회

의는 통계학술회의이지만 내용상으로는 경제학·사회학·환경생태학 등의 분야에서 통용되거나 적용되는 통계 기법이 소개되는 매우 실용적인 회의였다. 통계학의 흐름이 한편으로는 고도의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는 방향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문제를 통한 실용성을 강조하는 방향이 있는데 이번 회의는 후자의 성향이 매우 강하였다. 참가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필자와 같이 통계 이론을 연구하는 통계학자는 물론 경제학·사회학자 그리고 국가통계를 생산하는 국가기관의 통계업무 관련 연구자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특히 각국의 국가 통계기관, 즉 미국, 캐나다, 홍콩, 영국, 멕시코 등의 통계청에서 많이 참가하였다.

통계의 유용성은 지식·정보사회로 발전될수록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국가·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 방법을 통한 주요 통계의 생산이 필수적이며,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통계기법 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사회가 점점 개방화되고 정보의 교류가 많아지는 추세로 볼 때, 중요통계의 시기 적절한 생산과 효율적인 통계기법의 개발은 세계 각국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안은 회의의 첫날 주제 발표를 한 멕시코의 국립통계·지리·정보연구소장인 카를로스 자끄(Carlos M. Jarque)박사의 연설에 잘 요약이 되어 있다.

자끄박사는 ‘21세기를 향한 멕시코의 통계정보시스템 (Mexico’s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towards the 21st Century)’에 관

한 연설에서 현 시대의 현상 및 문제점을 지적한 뒤 멕시코의 통계정보시스템을 설명하였다. 인간은 서로 다른 세계 곳곳에서 태어나 자기만의 관습과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많은 것을 공유하며 살아간다. 비록 살아가는 지리적 위치는 다를지라도 환경, 생태, 경제, 과학기술의 전이(transformation)를 통하여 우리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전이는 현재보다 21세기에는 더욱 빨리 이루어질 것이며 따라서 누가 빠르고 정확하게 이러한 전이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느냐가 21세기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서 출발하여 자끄 박사는 멕시코의 통계정보시스템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였다.

멕시코 연구소직원은 3만명

여기에서 멕시코의 국립통계·지리·정보연구소(INEGI)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는 통계청 혹은 다른 이름의 통계관련 기관이 정부부서 내에 있으며, 이 부서에서는 국가 통계를 생산하며 다른 업무와는 독립되어 있다. 물론 부서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럿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주로 통계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은 공통적인 사항이다. 그런데 멕시코의 INEGI는 명칭에서 보듯이 통계·지리·정보 등 크게 세분야의 일을 하고 있었다. 국가 통계를 생산하여 국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은 물론, 위성과 사진관측을 통하여 멕시코의 지도 제작과 지리 관련 연구를 하며, 더불어 국가 전산망 같은 통신망 사업도 INEGI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다. INEGI의 직원은 전국에 3만명을 헤아린다 하니 그 조직이 매우 방대하고 멕시코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운영하는 중요 기관인 듯하다. 이러한 시스템이 어느 정도로 효율적인 기능을 하는지는 짧은 회의 참석기간 동안 파악하기는 어려웠지만, 통계의 속성상 다른 정보분야와 결합이 되면 더 유용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회의는 나흘동안 6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흥미있는 세션이 여럿 있었다.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한다.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국가 통계로 작성되는 조사가 중요하기는 마찬가지이며 국가통계의 공신력을 높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세션에서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각국의 사례가 실제 조사를 통하여 소개되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서 실시한 조사의 예는 논문이나 보고서를 통하여 익히 보아왔지만, 라틴아메리카,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의 예는 이번 회의를 통하여 처음 접하였다.

이들 나라에서 공식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그들의 노력이 인상적이었다. 전통적인 조사방법에 최근의 기술 발달을 바탕으로 한 첨단기법이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의 도입이다. 지리정보시스템에 관련된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험을 보면 상당부분 완성단계에 들어서고 있으며 수정·보완하는 단계를 거쳐 부분적으로 실용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리정보시스템이 도입된 시기

가 불과 10년 안팎에 지나지 않음을 상기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실용화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통계조사기법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통계 올바른 평가' 논문 발표

이번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진지한 태도는 인상적이었다. 배정된 세션마다 많은 사람이 몰려 발표, 질의, 토론을 벌였으며, 새로운 기법이나 사례가 소개될 때에는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필자는 이번 회의에서 통계조사결과에 대한 평가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다소 이론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에서 온 참가자들이 진지하게 경청하였다. 통계조사는 조사기법과 함께 숙련된 경험이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또한 첨단기술이 점점 한 축을 차지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이번 회의는 그러한 현상을 각국의 사례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가 통계의 발전 방향을 암시하고 있었다.

멕시코는 멀다. 서울에서 직항로가 없어 L.A.를 경유해 가야 하는 지리적인 거리도 멀지만, 한국에서 생각하던 멕시코와 실제 현지에서 느끼는 멕시코의 차이가 그 거리감을 더하게 한다. 멕시코에 대한 정보·자료 부족과 다양한 멕시코의 얼굴을 단선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던 우리의 평소 시각이 매우 협소했음을 현지에서 느끼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절감했다. 낯선 장소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세계 각국의 통계학 발전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이 든다. ㉔